

SPECIAL FEATURE

New Face



31 from World

Art는 2024년 새해 첫 특집으로 한국 미술계의 '아고라'를 열었다. 제도 시장 이론 교육 창작 분야의 전문가 33인이 우리 아트씬에 긴급 진단을 내렸다. 1월호가 카메라의 앵글을 내부에 맞춰 '공론의 장'을 펼쳤다면, 2월호는 그 시선을 외부로 돌려 글로벌 아트씬에서 활약하는 '뉴 페이스'에 스포트라이트를 비춘다. 기획 비평 마켓 연구 출판 언론 등에서 국제 무대를 총횡무진하는 새로운 얼굴 '영 파워즈'를 뽑았다. 편집부는 세계 각지에서 활동하는 한국(계) 미술인을 찾기 위해 온오프라인으로 정보를 수집했다. 수백 건의 추천과 제보가 이어졌다. 이 가운데 내일의 아트씬을 힘차게 여는 차세대 미술인 31인을 엄선했다. 해당 도시에서의 거주 기간과 주요 활동 실적을 간략히 소개한다. 먼저, 31인의 인적 성분을 간략히 소개한다. 첫째, 거주 국가. 대륙별로 구분하면 아메리카 13명, 유럽 12명, 아시아 6명이다. 이 중 컨템퍼러리아트의 핫 플레이스인 뉴욕과 베를린이 각각 10명과 5명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 특기할 점은 한국 미술인의 활동이 지구촌 곳곳으로 광역화했다. 멕시코시티, 엘라베마, 싱가포르, 자카르타, 아부다비 등 예술 '사각도시'에도 한국의 젊은 피가 포진하고 있다.

둘째, 성별과 연령. 여성 25명, 남성 6명으로 여성이 4배가량 많다. 전문성과 독창성을 갖춘 여성 미술인의 수가 미술계의 여초(女超) 현상을 반영한다. 출생 연도는 1970년대생 3명, 1980년대생과 1990년대생은 각 13명이다. 3040 세대가 중심이다. 셋째, 직종. 전시기획 16명, 연구와 미술시장 각 5명, 공간 운영 4명, 미술언론 1명. 기존에 강세를 보이던 기획, 인물의 증가와 전문 인력의 등장이 눈에 띈다. 편집부는 특집 참여자의 활동을 통해 컨템퍼러리아트의 새 지형을 그려냈다. 이들에게 다음과 같은 큰 질문을 던졌다. 왜 해당 도시에 정착했는가? 현지에서 가장 뜨거운 미술담론은 무엇인가? 한국과 해외의 미술씬은 무엇이 같고, 다른가? 다양한 응답이 나왔지만, 대륙마다 유사한 문제의식을 공유하는 점이 흥미롭다. 아메리카는 모든 참여자가 빠짐없이 '다양성'과 '정체성'을 내세웠다. 인종적 동질성 때문인지 디아스포라와 소수자 커뮤니티의 부각됐다. 강조했다. 반면 유럽은 예술인 복지, 연대와 치유, 실험적 미술의 안전망 등이 부각됐다. 또한 전쟁, 이주, 난민 같은 사회 현안과 함께 과거사의 반성과 화해 등 국가적, 인종적 갈등을 이슈로 꼽았다. 아시아는 퍼포먼스, 미디어아트, 생태미술 등을 각 지역의 정체성 구축과 더불어 탐색하고 있다. 로컬리티의 글로벌 전략이다. 과연 글로벌 뉴 페이스는 이 거대한 '아트 유니버스'에서 어떤 새로운 별자리를 그려낼까? 미래의 아트씬을 견인할 영 파워!

New Face 31 from World



Europe

- 메츠**
손지선 / PJ갤러리 대표
- 오르후스**
이설희 / 쿤스트할오르후스 수석큐레이터
- 스톡홀름**
조율 / 독립큐레이터
- 베를린**
김금화 / 독립큐레이터
나비 / 소마아트베를린 대표
마에니 / 독립큐레이터, 연구자
박혜인 / 독립큐레이터, 카셀대 철학박사 연구자
변현주 / 독립큐레이터
- 런던**
김예원 / 화이트큐브 런던 큐레이터, 시니어 아티스트 코디네이터
이가현 / 왕립예술대 박사 연구원
- 암스테르담**
박유진 / 독립큐레이터
- 헬싱키**
황석호 / 드리프트플랫폼 예술감독

Asia

- 도쿄**
권상해 / 독립큐레이터, 스틸라이브 공동 대표
- 조혜수 / 독립큐레이터, 유하라다갤러리 어시스턴트디렉터
- 싱가포르**
김해주 / 싱가포르아트뮤지엄 선임큐레이터
- 베이징**
김기부 / 독립큐레이터
- 자카르타**
전정옥 / 아르코랩스 디렉터, 자카르타주립대 미술교육과 교수
- 아부다비**
우인선 / 글로벌아트데일리 에디터

America

- 뉴욕**
가수정 / 뉴욕대 아시아퍼시픽아메리칸연구소 연구원
김예지 / 웰컴컬렉티브, 서울아트프로젝트 대표
김호원 / 티나킴갤러리 어시스턴트, 큐레이터, 평론가
- 장재준 / 서브타이틀드NYC 대표
- 전영 / 아이언벨벳 대표
- 정하영 / 독립큐레이터, 평론가
- 이지현 / 알재단 프로그램 디렉터
- 최연수 / 뉴욕현대미술관 펀드레이징 부서 연구원
- 클레어 김 / 아시아아트카이브인아메리카 매니저
- 필라델피아**
김태이 / 필라델피아미술관 어시스턴트 큐레이터
- 로스앤젤레스, 맥시코 시티**
김기범 / 커먼웰스앤카운슬갤러리 파트너
- 앨라배마**
김민아 / 앨라배마대 미술사학과 조교수

11

필란트로피, 또 하나의 기획 김태이

- ① 1994년
- ② 필라델피아
- ③ 필라델피아미술관 어시스턴트큐레이터
- ④ @t.aeyi



김태이는 2021년 북미 유수의 미술관에 인력을 단기 파견하는 연수 프로그램에 지원했고, 당시 첫 협력 기관이었던 필라델피아미술관 현대미술 파트의 펠로우 연구원으로 채용돼 미국행 티켓을 끊었다. 파견 기간이 끝날 무렵 미술관에서 풀타임 오퍼를 제안했고, 마침 한국 현대 미술전시 <시간의 형태: 1989년 이후 한국 미술>(2023. 10. 21~2. 11) 준비가 한창인 터라 곧바로 기획 제반 업무에 투입됐다. <시간의 형태>는 필라델피아미술관의 우현수 부관장이 오랜 기간 노력해 북미에서 15년 만에 열린 최대 규모의 한국 현대미술전으로 큰 주목을 받고 있다. 그는 미국과 한국 국공립 미술관의 가장 큰 차이로 '운영 자금의 출처'를 꼽는다. 국공립 미술관에 정부 예산이 배당되는 한국과 다르게, 미국은 컬렉터와 기부자로 이뤄진 소위 말하는 '필란트로피스트(Philanthropist)'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한다. 이들은 분기별로 큐레이터와 회의를 거치고, 그에 따라 미술관 운영 자금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기부금을 출자한다. "미술관마다 개입의 강약은 다를지언정, 소장품 구매와 전시 선정에 필란트로피스트의 압력을 결코 무시하기 어렵다. 한국에 비해 미국 공공 미술관은 이들의 소견에 따른 사회적인 민감도가 높고, 전시 질과 기관 운영도 돈의 흐름에 좌우되곤 한다. 그래서 미국 미술기관은 'DEIA'를 치열하게 다룬다. DEIA란 다양성(diversity), 형평성(equity), 포용성(inclusion), 접근성(accessibility)을 의미하는 단어들의 첫 자를 딴 조어인데, 종종 기관 운영 차원에서 이를 담당하는 부서가 따로 있을 정도다. DEIA는 최근 미국 갤러리와 미술관의 행정과 비전, 나아가 전시의 방향성에 결정적인 이정표 역할을 한다." 고려대 사회학과 학사, 이화여대 미술사학과 석사 졸업. 국제갤러리 어시스턴트 역임.



위 · <시간의 형태: 1989년 이후 한국 미술>전 전경 2023 필라델피아미술관_이 전시에 한국 작가 28인이 참여했다. 아래 왼쪽 · 마이클 주 <헤드리스(생산된 초상)> 불상, 플라스틱 가변크기 2000 오른쪽 · 오인환 <그가 그를 만나는 곳> 인센스 가루 가변크기 2001~_<시간의 형태>전 출품작.